

발 간 사

우리 종단은 올해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정통성을 간직한 유일한 종단입니다.

한국불교는 이 땅에 전래된 이래 부침의 역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근현대 한국불교 역시 격동의 한국사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왜색불교의 청산과 정체성 확립, 전근대성과 비민주성의 극복,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지난한 역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한국불교를 청정승단의 계승과 유지, 자주적이며 자율적 교단의 건설과 운영, 역사와 사회에 부응하는 불교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대화의 중심에는 바로 ‘기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종단은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기념하여 ‘종단 50년, 기록과 대화하다’라는 제하의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종단이 지나간 50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뜻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에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적 편린만을 모은 술이부작(述而不作)을 넘어 초심을 잃지 않은 가운데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자는데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단은 지난 50년 동안 크고 작은 좌절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면면부절(綿綿不絕)한 것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불교이념과 모든 존재의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원력을 간단없이 수행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종단의 역사는 끊임없는 자성과 쇄신, 변화와 혁신의 결사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종단은 지난 50년 전에 비해 그 형식과 내용 모두의 측면에서 괄목상대(刮目相對)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이라는 값진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종단은 아직도 개척해야 할 미래가 있고, 새롭게 기록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역천겁이 불고(歷千劫而不古), 금만세이장금(亘萬歲而長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디딤돌 삼아 입전수수(入廬垂手)의 정신으로 종도뿐 아니라 역사, 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하여 희망의 미래를 일구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 대승보살도로 한국 불교사를 활기차게 기록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불기2556(2012)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